



2012년 8월 3일(금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7월중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 예상외 상회
- 2) 경제 전문가들, 실업률 6-7%가 New Normal이라고 주장
- 3) 중서부 가뭄사태로 인해 곡물 작황 최악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영국중앙은행, 기준금리 0.5% 동결
- 2) 국제통화기금(IMF), 러시아 내수 과열 경고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골드만삭스, 미국 최초로 사회충격펀드 투자 결정
- 2) 뉴욕증권거래소(NYSE) 중개업체 나이트캐피탈 유동성 위기 직면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7월중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 예상외 상회

- 금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지난 7월중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3천 명 증가했고,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8.3%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 2월 25만9천 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치로 전문가 예상치 10만 명 증가도 크게 상회한 결과
 - 한편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치 8.2%를 하회, 전문가들은 고용증가세가 실업률을 크게 하락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
- 정부 관계기관의 고용을 제외한 7월 민간 고용은 17만2천 명이 증가, 전문가 예상치 11만 명을 상회
 - 공장 고용은 자동차산업 고용 증가세에 힘입어 2만5천 명이 증가
 - 서비스업 민간 고용은 14만8천 명이 증가, 소매업 고용은 6,700명 증가
 - 반면, 건설업 고용은 1천 명 감소
 - 정부 고용은 9천 명이 감소,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감
- 시간당 평균 임금은 2센트 증가한 23달러 52센트,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.5시간을 기록
-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전망
 -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
 - 또한 모간스탠리, 시스코 시스템스 등 주요 우량기업의 감원 바람으로 실업률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2) 경제 전문가들, 실업률 6-7%가 New Normal이라고 주장

- 최근 미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회복세에 보여도 6~7%대의 실업률이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(New Normal)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

- 지난 8월2일(현지시간) 마이클 요시카미 테스트네이션웰스매니지먼트 CEO는 CNBC Squawk Box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
 - 그는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여도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의 4% 대보다 높은 6~7% 수준을 유지하는 게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발언
- 또한 이코노믹스 리서치 이사인 패트릭 오키프는 고용 증가세가 완만하여 실업률 역시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
 - 그는 수요, 생산, 소득 등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, 기업들도 신규 인력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

3) 중서부 가뭄사태로 인해 곡물 작황 최악

-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국토의 1/5에 해당하는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지난 8월2일(현지시간) 세계 최대 밀과 옥수수, 콩 생산국인 미국의 곡창지대 팜벨트(farm belt) 지역에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, 다음 주부터 미 중서부 지역에 또다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식량 가격 상승 등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음
 - CNBC는 지난달 31일까지 미 국토의 20%에 달하는 지역이 심각한 가뭄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도
 - 미농무부는 금년 가뭄으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32개 주 1584카운티(구)에 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발표
- 이는 지난 1956년 이후 가장 심각한 사례로 꼽히는 이번 가뭄으로 미 전체 면적의 80%가 평년보다 메마른 상태인 것으로 분석
 - 특히 곡창지대인 중서부 지역의 타격이 큼
 - 현재 아이오와와 일리노이, 그리고 인디애나 등 중서부 지역은 지난 한 달 동안 강우량이 예년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

- 또한 캔자스는 88%, 네브래스카는 83%, 아이오와주는 31%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o 이에 따라 옥수수 가격은 현재 상품거래소에서 부셸당 약 8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가뭄사태가 지속되면 올 연말까지 10달러로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됨
- o 또한 이번 가뭄으로 인해 축산업계에 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전문가들은 옥수수 가격의 급등은 사료 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영국중앙은행, 기준금리 0.5% 동결

- o 지난 8월2일(현지시간) 영국중앙은행(BOE)은 금융정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.5%로 유지하고,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
 - 영국은 지난달 500억 파운드를 추가로 시장에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해 지난해 이후 양적 완화 규모는 총 3,75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음
- o 한편 영국 경제는 2/4분기 0.7%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,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긴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

2) 국제통화기금(IMF), 러시아 내수 과열 경고

- o 지난 8월2일 국제통화기금(IMF)은 연례 평가 보고서를 공개, 러시아 경기 과열을 경고하면서 재정 축소 운영과 점진적인 금리 인상,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권고
 - 금번 보고서는 러시아가 과열을 피하고자 내수를 진정시키는데 우선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
- o 한편 러시아는 지난 2/4분기 연율 기준 3.9% 성장, IMF의 전망치 4% 성장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골드만삭스, 미국 최초로 사회충격펀드 투자 결정

- 지난 8월2일(현지시간)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뉴욕시와 함께 청소년 범죄를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실험적으로 사회 충격 펀드(social impact fund)를 운영하기로 결정
 - 이 같은 종류의 사회충격 펀드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며, 본 프로그램은 뉴욕시가 청소년 범죄 감소를 위해 4년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에 96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
 - 뉴욕시는 수감자들에게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, 교육,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
- 골드만삭스는 재범 비율이 최소 10% 줄어들 경우 투자액 전액을 회수 가능하며, 목표치 10%를 넘을 경우 회수액은 더 증가하지만 수익 한도는 210만 달러로 제한됨
 - 한편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운영하는 블룸버그 자선 재단도 골드만삭스에 720만 달러의 신용을 보증, 펀드운영은 비영리재단인 포드재단이 담당할 예정

2) 뉴욕증권거래소(NYSE) 중개업체 나이트캐피털 유동성 위기 직면

- 지난 8월1일(현지시간) 시스템 오류로 뉴욕증권거래소(NYSE)에서 대량 거래중단 사태를 일으킨 나이트캐피털이 주요 고객들의 자금유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
- 전날 나이트캐피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 시스템 오류로 150개 이상의 종목 주가가 요동쳤고, NYSE는 6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취소한바 있음
 - 이로 인해 나이트캐피털 고객 일부가 시스템 오류 여파로 거래를 중단 하면서 4억4천만 달러의 손실에 직면, 나이트캐피털의 주가는 이틀사이 63%나 폭락
- 한편 나이트캐피털 측은 기술적인 문제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현재는 평소처럼 고객들을 대신해 시장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 무마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